

기적 #8: 부활

연사:보 스텐-브래디

2023년 8월 13일

제4복음서가 생명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번 나사로 편은 축소판 제4복음서입니다.
앤드류 T. 링컨

요한복음 11장. 역사. 이 본문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장은 예수님과 그의 일련의 만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매들, 제자들, 나사로, 바리새인들의 회의. 그들 모두는 그들의 눈앞에서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생명의 저자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관점.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여동생 마르다가 사는 마을인 베다니 출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으며 그의 오라비 나사로는 병들었더라 그래서 자매들은 주님께 전갈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플레이어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알려진 방법.

오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주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너는 사랑하고 나서 버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

당신은 사랑하고 나서 버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어거스틴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질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묻는 많은 질문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이 죽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누이와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니 [두 사람을 친구로 여기시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니 요한복음 11:4-6

예수님은 이들을 더 머무십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진술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녀의 누이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틀. 그는 기다렸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갈 시간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미 나흘을 보낸 것을 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한 오 리가 조금 못 되는 곳에 있더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로하러 왔더라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17-21**

마르다는 도중에 그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가 집에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온다; 메리는 안에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슬픔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1:22-26**

그녀는 그분이 그녀의 오라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에 오시기로 정하신 이시요 [세상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었고 또 믿나이다.” 요한복음 **11:27**

마르다는 대답하지만 예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진실일까? 나는 당신이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응답하기로 선택한 방식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이 말을 하고 나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조용히 속삭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신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마중나온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집에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요한복음 **11:18-31**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왜? 그분의 첫 목적지가 나사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덤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녀의 오빠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를 확인하려고 합니까? 관계.

유대인들은 그녀의 집에 있었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 은사, 사랑을 따라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들은 당신의 슬픔을 따라 예수님께로 갈 것입니다. 슬픔에는 우리를 멈추고 응시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슬픔을 따라갑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32**

마리아는 그녀의 여동생이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 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예배 장소에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십니까? 어느 것도

아니다. 마르다는 정직한 감정 표현으로 인해 수정되거나 거부되지 않으며 마리아는 부드러운 감정 표현으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감정에 싸여 같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예배 장소에서 예수께 내 의심과 두려움과 혼란을 가져간다면, 즉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내 삶에서 그분의 주권만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이해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제 시간에 나타나야 했던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화끈하게 들어왔을 때보다 분명히 저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 느끼는 방식을 조금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그분과 그분의 일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33-35

예수의 인성.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십니다. 그는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을 깨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죽음의 고통에 슬퍼하고 화를 냅니다. 나는 궁금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단번에 날려버릴 것을 아시고 이 순간에도 십자가 앞을 내다보실까요? 그분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죽음의 얼굴을 영원히 바꿀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가 [가까운 친구로]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37](#)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말하였다. 요한복음 11:36-37

관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태만을 봅니다. 똑같은 정확한 상황. 완전히 다른 관점. 하나만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깊이 감동되어 무덤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것은 동굴이었고 바위가 거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치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악취가 나나이다 [희망이 없다!]” 요한복음 11:38-39

용한은 이미 이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누구인지 정확히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여기에서 그녀를 "죽은 자의 누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르다는 시체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 돌을 치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항상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주위에 서 있는 백성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그리고 나를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사람이 손발을 세마포로 단단히 싸고 얼굴을 세마포로 감싼 채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놓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40-44

그렇게 악몽은 끝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거의 본 적이 없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11:45-4**

예수님께서 그날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위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한번만. 사망 불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15**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13-15**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4-7**